광융합기업-해외바이어 온라인 수출상담회

광주시, 11월 19일~27일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대체
코로나 시대 지역기업 지원

광산업 선도도시인 광주시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광융합기업-해외바이어'를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광주시와 한국광산업진흥회는 "11월19일부터 27일까지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를 비대면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로 전격 전환해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는 지난해까지 18회 개최해 광융합산업로드쇼(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평균 150개사 참여, 관람객 1만1196명, 수출상담액 2141억원의 성과를 낸 국제적인 광융합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는 전문 전시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전시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올해 광융합산업로드쇼 및 세미나는 미개최하고, 비대면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로 전환했다. 광주시는 이번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해외 마케팅과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초보·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독일, 일본, 베트남 등에 있는 해외마케팅센터 24곳을 활용해 해외바이어 130여명 발굴하는 성과를 냈으며, 지역기업 30여곳도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여 신청을 했다. 시는 향후 추가로 해외바이어 200여명 발굴 및 지역기업 20여곳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한국광산업진흥회는 또 해외바이어와 지역기업간의 수출계약 성과를 맺기까지 사전에 기업 및 제품 소개, 해외바이어에 관련자료 송부 등 수십 차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아주 까다로운 과정 등도 직접 중개해 성사 확률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오는 11월에는 지역기업 연혁, 재정상태, 주력제품 등 수출을 위한 메뉴와 광융합산업 육성 및 성과, 최신 기술동향 등의 콘텐츠를 담은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치선 광주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올해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수출장벽을 허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광융합 기업의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건설현장 점검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 8일 오후 빛그린산단에 조성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광주시 제공〉

"잃어버린 이웃을 찾습니다"… 남구 LH송화마을8단지 인사하기 캠페인

광주시 남구 노대동 LH송화마을8단지(관리소장 고미란) 아파트에서 최근 남구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입주민과 함께 하는 '잃어버린 이웃을 찾습니다' 캠페인 〈사진〉을 개최했다.

LH송화마을8단지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행복주택이며, 주거세대의 10% 정도는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다.

남구는 세대간 갈등 해소와 친근한 이웃 사이 소통을 위해 "먼저 인사하면 나와 이웃이 행복해 진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입주민간 수시 소통을 위한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톡톡(TALK TALK)' 대화장도 마련했다. 또 현수막 등을 통해 주민간 인사하기 등을 유도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시·특별지방행정기관 행정협업 강화

11개 기관장 참석 협업회의
스마트공장 등 7개 과제 점검

광주시와 지역 내 국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협업과제를 점검하고 기관 간 현안을 공유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내 특별지방행정기관장들과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이현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 이미선 광주지방기상청장, 백호성 광주지방조달청장, 김진영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주심 호남권 질병 대응센터장, 최상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소장 등 11개 특별지방행정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인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편의 제공(지방국세청), 산재 사망사고 예방체계 구축(지방고용노동청), 인공지능 선도도시 스마트공장 도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영산강 수질 개선(영산강유역환경청) 등 7개 협업과제를 점검하고, 정부 정책이 광주시정에 스며들 수 있도록 협업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청은 조성 예정인 '광주 AI 스타트업캠프'와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연계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 확산을 위한 혁신조달 추진협의체 구성'(조달청), 자동 기상관측장비 추가 설치(기상청) 등의 협업 제안도 나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기관이지만 광주에 뿌리를 내리고 광주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기관인 만큼 시와 소통하고 연대해 지역 발전에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임산부 맞춤형 지원정책 큰 호응

시술비·산후 도우미 지원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올 난임 450 부부 임신 성공

광주시가 배려 받는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양·한방 난임 부부 지원, 임신부 건강관리, 청소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산후관리 도우미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임산부에 마스크 6만부 우선 배부했고, 6월부터는 동구와 북구에서 임산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엽산·철분제 신청 등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엄마와 아이를 지키는 생활 속 코로나 19 방역수칙 이행 동참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외출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으로 올들어 난임 부부 450쌍(9월말 기준)이 임신에 성공하는 성과도 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일환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 기본 지원비 외에도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한 것이 효과를 본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엔 임산부의 날(10월10일) 을 맞아 비대면 디아이와이(DIY) 태교활동 프로그램, 임산부 행복주머니 배부 등 다양한 행사를 자치구별로 운영하고 있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가 일상이 되면서 답답함과 불안감에 힘들어 했을 임산부들이 광주시가 마련한 다양한 정책으로 건강하게 임신·출산의 시간을 지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임신·육아지원 정책을 마련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하철·시내버스 활용
도로명주소 비대면 홍보

광주시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사용률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붙여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있으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선진국형 주소 제도다.

광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건물이 없더라도 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각종 시설물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사물주소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홍보는 이달 말까지 지하철 내 도로명주소 홍보영상 송출, 시내버스 래핑광고 등으로 진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단풍철 임박… 가을 산악사고 주의하세요

광주시 소방본부 주의보
10월 산악사고 83% 늘어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단풍 절정기를 맞은 10월 등산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을철 산행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월평균 무등산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7만여명으로, 월별로는 단풍철인 10월 탐방객이 34만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밀(밀집·밀폐·밀접) 피하기 등으로 실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등산객수가 예년보다 더 늘고 있다는 게 시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등산객수 증가는 산악사고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월평균 산악구조건수는 24건이고, 단풍이 드는 10월은 44건이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실족이나 추락 사고가 많았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간이구조구급함·산악위치표지판 점검·정비 ▲산악지형 숙달 및 고립사고 대비 구조 훈련 ▲산악 안전사고 예방 등 합동캠페인 전개 ▲자율 산악안전 순찰활동 등 산악사고 인명구조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자 광주시 구조구급과장은 "산행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등산 전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두 명 이상 함께 등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